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도시 연수

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도시 연수
시민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문화다양성 도시를 꿈꾼다

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1기 신도시 개발정책의 지방 거점도시이자 남동공단의 배후도시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인천에서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를 열었으며 주거와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자리 잡은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이후 스마트 첨단도시를 표방하는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약 25년간 개발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연수구의 바다는 새로운 땅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도시개발의 결과를 반증하듯 원·신도심의 아파트 평균 층수 차이는 도시의 단절적 성장과 경제 논리에 의한 격차와 소외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물리적 도시개발의 정점에 있는 첨단도시 연수구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현재의 화려하고 멋진 도시의 모습이 영원할 수 없다는 한계 인식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선언과도 같다.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위해 '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도시 연수'라는 문화도시 비전과 문화로 이음·채움·세움이라는 3대 전략, 시민들과의 동행에 있어 장벽이 되는 의식과 언어, 물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특성화사업 '무장벽지대'까지 총 19개 사업, 200억 규모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2020년 12월 24일 예비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었다.

연수구 문화도시 비전

올해는 법정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과의 다양한 거버넌스 조성,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재정 준비, 문화도시를 매개로 한 기관, 단체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문화공간 등과의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위한 즐거운 분투를 하고 있다.

연수구가 꿈꾸는 문화도시, 동행도시란 사회문화적 배경이 제각기 다른 개인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시민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문화다양성 도시'를 의미한다. 갯벌과 바다를 매립한 도시에서 도시공간과 일상이 문화로 채워지는 도시를 꿈꾸고 있으며, 빌딩과 아파트가 차지한 도시에서 구민의 문화적 활동으로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도시이자 무늬만 국제도시가 아닌 다양한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통해 국제성이 발현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연수구 문화도시 추진전략

동행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올해 연수구의 첫 발걸음은 문화도시 조례 제정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문화도시 전담조직을 연수문화재단에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5월에는 인천광역시와의 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도시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주도로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만큼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서도 다양한 시민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연수구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리서치'를 추진하며, 문화다양성 관점의 도시담론 형성 및 의제도출을 위한 '문화도시포럼', 그간 문화관광형 축제로 운영되어 온 능허대문화축제를 시민참여형 '문화로 동행축제'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간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활동 및 활동기반 조성을 통해 문화로 가득 찬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민간 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시도하는 '우리동네 문화등대', 연수구의 문화자원을 재해석하고 문화도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수구 문화자원 기초조사'도 추진한다.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확산과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다형식으로 나누기 위한 시민 라운드테이블 '연수다수다'와 청년들의 시선으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탐구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해보는 '연수문화발굴단' 등 다양한 세대와 활동유형에 따른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행도시 연수의 다양한 소식은 현재 운영 중인 연수구 문화도시 SNS(페이스북 culturalcity.YSFAC / 인스타그램 culturealcity_y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